# Batch 분석 결과 보고서

## Q1: [A1] A1. 현재 소유 또는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거주하신 시점은 대략 언제입니까?(전체 단위 : %)

거주 시점에 따른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 분석 결과, 주거생활권에 따라 거주 시점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음. 특히, 능곡·행신 그룹은 2020년 이후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관산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거주 비율을 기록했으며, 단독/기타 유형은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근 거주 시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4명 이상의 가구에서는 2020년 이후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과거 거주 시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30대 이하 가구주가 2020년 이후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최근 거주 시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600만원 이상의 소득 그룹이 2020년 이후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거생활권, 주택 유형,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소득이 거주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함.

## Q2: [A2] A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규모(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전체 단위 : %)

주택 규모 선호도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30~39평 규모의 주택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관산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또한, 표본유형에 따라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작은 주택 규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큰 주택 규모를 선호하며, 특히 4명 이상의 가구에서 30~39평 규모의 주택 선호도가 가장 두드러졌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작은 주택 규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10~19평 규모의 주택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큰 주택 규모를 선호하며, 600만원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 30~39평 규모의 주택 선호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음. 거주시점에 따라서는 1999년 이전 거주 그룹에서 10~19평 규모의 주택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2000~2009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 Q3: [A3] A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가구 구성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전체 단위 : %)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생활권 분석 결과, 관산 그룹에서 가구원 수 1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반면, 가구원 수 3명과 4명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관산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본유형에 따라 세입자 그룹에서는 가구원 수 1명과 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유자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주택유형 분석에서는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구원 수 1명과 2명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거주시점에 따라 1999년 이전 그룹에서는 가구원 수 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0년 이후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주택규모 분석 결과,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구원 수 1명과 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평 이상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음. 가구주 연령에 따라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구원 수 1명과 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가구소득 분석에서는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구원 수 1명과 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음. 이러한 결과들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택 유형이 단독/기타일 가능성이 높고, 주거생활권에 따라 가구원 수의 분포가 다르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Q4: [A4] A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거주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주거생활권에 따라 거주지 선택 이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고양 그룹은 적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졌고, 능곡·행신 그룹은 편리한 교통환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주택유형별로는 단독/기타 그룹이 적정한 주택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아파트 그룹은 양호한 자녀교육 여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음. 거주시점에 따라 2000~2009년 그룹이 적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졌고, 1999년 이전 그룹은 편리한 교통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 주택규모에서는 19평 이하 그룹이 적정한 주택가격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나타냈고, 40평 이상 그룹은 양호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가구원 수에 따라 2명 그룹이 적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졌고, 4명 이상 그룹은 양호한 자녀교육 여건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그룹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음.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적정한 주택가격의 중요성이 높았고, 600만원 이상 그룹은 양호한 생활편의시설과 자녀교육 여건에 대한 관심이 더 두드러졌음.

## Q5: [A5] A5.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거주지) 주변의 주거·생활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전체 단위 : %)

주거·생활 환경 만족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아파트 거주자는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단독 및 기타 주택 거주자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2명 가구에서 가장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고, 1명 가구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마지막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은 보통 및 만족도를 보였고, 30대 이하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음.

## Q6: [A6] A6.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거주지)의 주거·생활 환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전체 단위 : %)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서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은 고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능곡·행신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능곡·행신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고양 지역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은 원당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일산·탄현 지역에서는 가장 낮았음. 주차공간 부족은 관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능곡·행신 지역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원당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관산 지역에서 가장 낮았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능곡·행신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관산 지역에서 가장 낮았음. 어린이 놀이터/공원/녹지 등 부족에 대한 불만은 원당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관산 지역에서 가장 낮았음.  
  
표본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은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차공간 부족은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가 작음에 대한 불만은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소음/공해 심함에 대한 불만은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유형별로는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은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차공간 부족은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도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가 작음에 대한 불만은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거주시점별로는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2000~2009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2000~2009년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은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2000~2009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가 작음에 대한 불만은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별로는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30~39평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30~39평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은 30~39평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차공간 부족은 40평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40평 이상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20~29평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가 작음에 대한 불만은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30~39평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원 수별로는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3명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1명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은 3명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2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가 작음에 대한 불만은 2명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3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어린이 놀이터/공원/녹지 등 부족에 대한 불만은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주 연령별로는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50대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은 40대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차공간 부족은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50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어린이 놀이터/공원/녹지 등 부족에 대한 불만은 40대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소득별로는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200~3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400~5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편의시설 부족은 400~5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가 작음에 대한 불만은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소음/공해 심함에 대한 불만은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0~5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 Q7: [A6\_2] A6.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거주지)의 주거·생활 환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전체 단위 : %)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관산 지역에서는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일산·탄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은 고양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능곡·행신 지역에서는 낮은 값을 보였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일산·탄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고양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 역시 관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양 지역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본유형에 따른 불만족 이유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소유자 그룹에서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입자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두드러졌음.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은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연립/대세대 거주자들은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두드러졌음.  
  
거주시점에 따라서는 2010년 이후 거주 그룹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1999년 이전 거주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두드러졌음. 가구원 수에 따른 분석에서도 4명 이상의 가구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1명 가구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두드러졌음.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50대 그룹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30대 이하 그룹에서는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Q8: [A6\_3] A6.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거주지)의 주거·생활 환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3순위)(전체 단위 : %)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편의시설 부족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음. 특히 능곡·행신 그룹에서 가장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고, 원당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기록했음.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은 고양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능곡·행신 그룹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고양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원당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교육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원당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관산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어린이 놀이터, 공원, 녹지 등 부족에 대한 불만은 원당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낮은 값을 보였음. 보행환경 열악에 대한 불만은 능곡·행신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고양 그룹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음. 공공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은 원당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냈음. 소음 및 공해 심함에 대한 불만은 관산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본유형에 따라 소유자 그룹에서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고, 세입자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그룹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으며, 연립/대세대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이 높았음. 거주시점에 따라 2010년 이후 그룹에서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이 가장 높았음. 가구원 수에 따라 3명 그룹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1명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음. 가구주 연령에서는 50대 그룹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이 두드러졌음. 가구소득에 따라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주택 노후/불량이 가장 높았음.

## Q9: [B1] B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원하는 미래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전체 단위 : %)

현 거주지의 희망 미래상에 대한 선호도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고양 지역에서는 공공/교육/교통편익시설이 확보된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산·탄현 지역에서는 가장 낮았음. 주택 유형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는 공공/교육/교통편익시설이 확보된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연립/대세대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음.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공공/교육/교통편익시설이 확보된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4명 이상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음. 가구주 연령이 40대일 때 공공/교육/교통편익시설이 확보된 생활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공/교육/교통편익시설이 확보된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400~599만원 소득 그룹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음. 이러한 경향은 주택 유형,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났음.

## Q10: [B2] B2. 고양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전체 단위 : %)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시 중점 고려 사항에서 주거생활권에 따라 노후시가지에 대한 도시정비의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났음. 고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관산 지역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음. 직주근접의 실현은 일산·탄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고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은 관산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원당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순환재개발 촉진은 고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관산 지역에서 가장 낮았음. 저렴한 주택 공급은 관산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산·탄현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본유형에 따라 소유자 그룹은 직주근접 실현과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세입자 그룹은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음.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그룹이 노후시가지 도시정비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거주시점에 따라 2010년 이후 거주 그룹이 직주근접 실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0~2009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직주근접 실현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은 1명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음.  
  
가구주 연령에 따라 50대 그룹이 노후시가지 도시정비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Q11: [B3] B3.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 방식은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주거생활권에 따라 선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음. 고양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관산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음. 주택 유형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연립 및 다세대 거주자들은 철거형 정비사업을 가장 선호했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 특히 4명 이상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50대 그룹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 건축물 단위의 건축 및 개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으며, 200~399만원 소득 그룹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 Q12: [B4] B4.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및 지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전체 단위 : %)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은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고양 그룹은 도시재생/정비사업 공공참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두드러졌고, 관산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기반시설 확충은 관산 그룹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음.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고양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규제완화에 대한 선호는 능곡·행신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고양 그룹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본유형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음. 규제완화는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입자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거주자가 도시재생/정비사업 공공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독/기타 유형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음. 기반시설 확충은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아파트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연립/대세대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거주시점에 따라 2010년 이후 거주자는 도시재생/정비사업 공공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1999년 이전 거주자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2010년 이후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음.  
  
주택규모에서는 30~39평 그룹이 도시재생/정비사업 공공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19평 이하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기반시설 확충은 40평 이상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20~29평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음.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30~39평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규제완화는 20~29평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30~39평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음.  
  
가구원 수에 따라 4명 이상 그룹이 도시재생/정비사업 공공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1명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가구주 연령에서는 40대 그룹이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음.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규제완화는 50대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음.  
  
가구소득에 따라 400~599만원 그룹이 도시재생/정비사업 공공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기반시설 확충은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399만원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주택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200~3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규제완화는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0~599만원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음.

## Q13: [B5] B5. 귀하께서는 역세권 반경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체 단위 : %)

주거생활권에 따라 적정 역세권 반경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음. 특히 '관산' 그룹은 반경 200m 이내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고양' 그룹은 낮은 값을 보였음. 또한 주택 유형에 따라 역세권 반경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를 보였으며, '단독/기타' 그룹은 반경 400m 이내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아파트' 그룹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적정 역세권 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3명' 그룹이 반경 500m 이내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음.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정 역세권 반경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40대' 그룹이 반경 500m 이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역세권 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600만원 이상' 그룹이 반경 500m 이내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음.

## Q14: [C1] C1.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축물을 포함한 지역일대에 철거형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면 찬성하십니까?(전체 단위 : %)

현 거주지 일대 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 여부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능곡·행신 그룹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산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또한, 표본유형에 따라 소유자 그룹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세입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에서 찬성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단독/기타 거주자에서는 낮은 값을 기록했음. 주택규모에서는 20~29평 그룹이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고, 19평 이하 그룹이 가장 낮았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3명 그룹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상승했으며, 40대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이 확인됐음.

## Q15: [C2] C2. 철거형 정비사업에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 이유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능곡·행신 그룹에서는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관산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이유는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능곡·행신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음. 분양권을 통한 수익 기대는 관산 그룹에서 가장 높게 확인됐고, 능곡·행신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그룹에서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단독/기타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반면,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아파트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거주시점에 따라 2000~2009년 그룹에서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이유는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2000~2009년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가구원 수에 따라 4명 이상 그룹에서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며, 2명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2명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명 이상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가구주 연령에 따라 30대 이하 그룹에서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이유는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200~399만원 그룹에서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400~599만원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음.

## Q16: [C3] C3. 현재 거주지역 정비사업기간 동안에 희망하시는 주거대책 계획은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주거대책 계획에 대한 희망 사항은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특히 능곡·행신 그룹에서는 고양시 내에서 주택 임차를 가장 많이 희망했으며, 반면 고양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고, 단독/기타 그룹이 고양시 내에서 주택 임차를 가장 많이 희망한 반면, 아파트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고양시 내에서 주택 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명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음. 또한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양시 내에서 주택 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50대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고양시 내에서 주택 임차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이러한 결과는 주거생활권, 주택 유형,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대, 가구소득에 따라 희망하는 주거대책 계획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함.

## Q17: [C4] C4. 철거형 정비사업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이유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고양 그룹은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관산 그룹은 새 주택이 비싸 재입주가 어려운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사업기간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는 원당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업방식을 원한다는 응답은 능곡·행신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음.  
  
주택유형에 따른 반대 이유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음. 단독/기타 그룹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립/대세대 그룹은 새 주택이 비싸 재입주가 어렵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사업기간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는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다른 사업방식을 원한다는 응답은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음.  
  
가구주 연령에 따른 경향도 관찰되었음. 30대 이하 그룹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은 새 주택이 비싸 재입주가 어렵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50대 그룹은 사업기간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그룹은 건축 및 토지 보상금이 적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 그룹이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은 새 주택이 비싸 재입주가 어렵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사업기간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는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임대료 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어려운 비율은 200~3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음.

## Q18: [C5] C5. 거주지역(생활권)의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도시·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위한 중점 고려 사항에서 생활여건 편리성은 주거생활권에 따라 고양 그룹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반면 능곡·행신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주거환경 쾌적성은 능곡·행신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고양 그룹은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음. 경제 활력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고, 관산 그룹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주택유형에서는 연립/대세대 그룹이 생활여건 편리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단독/기타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사회 안전은 단독/기타 그룹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아파트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거주시점에 따라 2010년 이후 그룹이 생활여건 편리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1999년 이전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규모에서는 30~39평 그룹이 생활여건 편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고, 20~29평 그룹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가구원 수에 따라 3명 그룹이 주거환경 쾌적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4명 이상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가구주 연령에서는 50대 그룹이 생활여건 편리성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30대 이하 그룹이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서는 400~599만원 그룹이 경제 활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으며, 200만원 미만 그룹이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음.

## Q19: [C6] C6. 거주지역(생활권)의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전체 단위 : %)

거주지역(생활권) 필요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주거생활권과 가구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주거생활권에서는 '일자리확충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고양' 그룹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음. 또한, '문화/체육시설'은 '고양' 그룹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가구주 연령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은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체육시설'은 '50대'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고, '30대 이하'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선호를 나타냈음. '일자리확충시설'은 '50대' 그룹에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기록했음. 이러한 결과는 주거생활권과 가구주 연령이 거주지역의 필요 시설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함.

## Q20: [C6\_2] C6. 거주지역(생활권)의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전체 단위 : %)

거주지역(생활권) 필요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필요는 고양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일산·탄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음. 일자리확충시설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양 그룹에서는 가장 낮았음. 공원/오픈스페이스는 고양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공공시설은 관산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고양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일산·탄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원당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표본유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반면, 공공시설은 세입자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소유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유형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도시기반시설은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일자리확충시설은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공원/오픈스페이스는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단독/기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연립/대세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아파트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거주시점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도시기반시설은 2000~2009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시설은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0~2009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1999년 이전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10년 이후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주택규모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30~39평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도시기반시설은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평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일자리확충시설은 40평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공원/오픈스페이스는 40평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19평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30~39평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원 수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3명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1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도시기반시설은 1명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일자리확충시설은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시설은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명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1명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명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주 연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50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도시기반시설은 50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일자리확충시설은 50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공공시설은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교육시설은 30대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60대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대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가구소득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는 6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도시기반시설은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3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일자리확충시설은 400~5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공원/오픈스페이스는 200~3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복지시설은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400~599만원 그룹에서 가장 낮았음.

## Q21: [C7] C7.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구역으로 재입주할 생각이 있습니까?(전체 단위 : %)

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주 의향은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능곡·행신 그룹에서 가장 높은 재입주 의향을 나타낸 반면, 일산·탄현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재입주 의향을 보였고, 단독/기타 주택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향을 나타냈음.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재입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3명 가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향을 보였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입주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600만원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 가장 높은 재입주 의향이 확인됐음. 거주시점에 따라서는 1999년 이전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재입주 의향을 나타냈으며, 2000~2009년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들은 주거생활권, 주택유형, 가구원 수, 가구소득, 거주시점에 따라 재입주 의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함.

## Q22: [C8] C8. 정비사업 완료 후 희망하시는 적정 주택평형은 무엇입니까??(전체 단위 : %)

정비사업 완료 후 희망 주택평형은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일산·탄현 그룹은 85㎡(34평) 이상의 평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고양 그룹은 40㎡(16평) 이하의 평형 선호 비율이 낮았음. 표본유형에 따라 세입자는 40㎡(16평) 이하의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소유자는 85㎡(34평) 이상의 평형을 더 선호했음.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85㎡(34평) 이상의 평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립/대세대 거주자는 41~60㎡(16~24평)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85㎡(34평) 이상의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40㎡(16평) 이하의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41~60㎡(16~24평)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소득이 높을수록 85㎡(34평) 이상의 평형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했음.

## Q23: [C9] C9.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체 단위 : %)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주거생활권, 표본유형, 주택유형, 거주시점, 주택규모,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주거생활권에서는 '관산' 그룹이 공공 추진 방식을 가장 높게 선호한 반면, '원당'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표본유형에서는 세입자가 공공 방식을 더 선호하고, 소유자는 공동시행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주택유형에서는 연립/대세대 그룹이 공공 방식을 가장 높게 선호했으며, 아파트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음. 거주시점에서는 2000~2009년 그룹이 공동시행 방식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1999년 이전 그룹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음. 주택규모에서는 19평 이하 그룹이 공공 방식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40평 이상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음.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공공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공공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Q24: [C10] C10.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은 어느 정도 역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체 단위 : %)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주거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일산·탄현 그룹은 자금지원을 통한 직접적 개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던 반면, 관산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음. 공공의 직접 시행에 대한 선호는 관산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능곡·행신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음. 아파트 거주자는 자금지원을 통한 직접적 개입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연립/대세대 거주자는 공공의 직접 시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두드러졌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금지원을 통한 직접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1인 가구에서는 공공의 직접 시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음.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자금지원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고, 60대 이상에서는 공공의 직접 시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음.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